

예산 5826억 편성... '리부트 보성333' 제시

보성군, 내년 본예산 제안서 발표
SOC 프로젝트, 5대 뉴딜 추진 등 단계적 일상회복 위한 목표 제시
군의회 거쳐 내달 15일 예산안 확정

보성군은 24일 열린 2022년 본예산 제안 설명회에서 '리부트 보성333' 비전을 발표했다.

'리부트 보성333' 비전은 2022년 보성군 운영 방향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전 분야에 재시동(reboot)을 건다는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목표가 제시됐다.

첫 번째는 올해 비전이었던 3대 SOC 프로젝트와 5대 뉴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다. 두 번째는 세계를 향한 3대 도전으로 2022. 보성세계차 엑스포 국제행사 규모 개최, 세계습지의 날 행사 성공개최, 득량 오봉산 구들장 현장 세계문화유산 등재 도전이다. 세 번째는 보성녹차, 발교꼬막, 보성키위 등 3대 특산품을 주력 상품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녹차는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 꼬막은 국가 갯벌 정원 사업을 통해 육성하고, 키위는 지리적표시 등재와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 등



보성군 의회에서 본예산 제안설명서 '리부트 보성333'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공격적인 사업 유치로 외연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보성군은 지난 19일 '리부트 보성333' 비전 실현을 위하여 5,826억 원 규모의 2022년 본예산을 편성해 보성군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2021년 본예산 5,350억 원보다 476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438억 원이 증가한 5,270억 원, 특별회계는 38억 원이 증가한 556억 원이다.

이번 예산안은 보성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에 최종 확정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2022년은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성공적인 코로나19 일상회복을

맞이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면서 "보성군은 2022년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나은 일상과 삶을 군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안전 교육 분야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5억 원, 보성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행정지원시설) 42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경비 10억 원 등 559억 원이 편성됐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보성신흥동 산 조성 16억 원, △구들장 힐링파크 조성사업 8억 원, △보성 다향대축제 7억 원 등 238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대를 맞아 문화콘텐츠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문화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모두 1천 262억 원이 편성되어 △기초연금 460억 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85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94억 원, △코로나19 등 각종 예방접종비 14억 원 등 군민의 건강과 빈틈없는 복지를 위해 쓰일 전망이다.

농림 해양 수산 분야에 △공익직불제 지원 236억 원, △울포 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사업 69억 원, △농어민 공익수당 64억 원,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사업 32억 원, △어촌뉴딜 300 사업(장양항) 25억 원 등 1천 626억 원이 편성되며 이밖에 환경 분야에 880억 원, 지역개발 교통 산업 분야에 50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다.

한편, 보성군은 2021년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 7천억 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보성(전남)=문병환 기자 m8627188@metroseoul.co.kr



경운기전용 야광경광봉을 배부하는 모습.

경운기 야광경광봉 배부 영양경찰서-농협 협업

영양경찰서(서장 윤주철)는, 해마다 발생하는 경운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영양농협과 협업, 부착식LED야광경광봉을 국, 지방도 등 운행이 잦은 경운기를 대상으로 부착해 주고 있다.

영양지역은 매년 이맘때쯤이면 가을철 행락차량과 수확기가 겹쳐 농기계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운기 사고는 사망사고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 시인성이 좋으며 휴대하기 간편하고 짐을 싣고 내릴 때에도 불편함이 없는 야광경광봉(마그네틱)을 경운기 운전자에게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윤주철 영양경찰서장은 "가을행락철과 수확기에 경운기 사고발생율이 높아 시인성이 좋고 편의적인 야광경광봉을 배부하였으며, 경운기 운행시 안전운행과 야간운행 자제를 당부하였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신의면여성단체협, 김장나눔 봉사 실시

신의면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이정희)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신의면복지회관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나눔봉사를 실시했다. 신의면 김장김치는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신의도 신의면에 직접 생산한 명품 천일염을 사용했다. 이날 정성껏 담긴 김치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세대 238가구와 관내 경로당 14개소에 전달되었다.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안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실시 담양군, 노약자 등 대상

담양군은 관내 24개 의료기관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만 65세 이상, 만 13세 어린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군은 자체 예산을 확보해 무료접종 대상군을 만 60~64세 군민 및 만 5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결혼이민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백신은 4가 백신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같은 시기에 독감 접종이 이루어지는 만큼 방문 전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한다. /담양(전남)=최영성 기자 dudtkd2343@

전남, 구독경제로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중기유통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 지원

전라남도 지역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활용한 지역 농축수산물 등의 판로도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서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판매자는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소비자는 차별화한 혜택으로 금액·시간·노력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유통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소상공인

구독경제화 상품 발굴 및 판촉 지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의 공동 정책 홍보 등에 힘을 모은다. 전남지역 특산물 판매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판로 노하우를 바탕으로 협력 시너지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제42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의 후속 사업이다. 전남도는 '소상공인 구독 경제화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전남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꾸러미와 특산품을 활용한 구독상품 50개를 개발·판매하고, 도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 구독경제 카

테고리를 개설해 물류와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남도장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엔 택배비 무료 혜택과 3개월 구독 시 기본 20% 할인, 구독상품 추가 시 5% 추가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구매자에게 1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추첨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정기적 판로 확보,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와 고정 수익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독경제 사업의 핵심은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도인 전남도가 우리 농산물 구독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구독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년 기자 ysn6313@

함평군, 일반벼 매입 추진 4억4000만원 준비 투입

전남 함평군이 2021년산 공공비축미 매입 후 잔여 물량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일반벼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 일반벼 매입 추진에 나선다.

25일 함평군에 따르면 전년 대비 쌀 예상 생산량이 18% 가량 증가해 공공비축미 매입 후에도 잔여 물량이 다량으로 남아있다.

이에 군에서는 함평농협쌀조합법인(통합 RPC), 관내 농협 및 정미소와 약정 체결을 통해 지역 농지에서 생산된 일반벼 잔여물량을 매입한다. 군은 약 4억4천만원의 준비를 투입해 포대당 신동진 1,500원 새청무·호평 1,000원을 농가에 지원할 방침이다.

/함평(전남)=김태우 기자 ts7080@

구례군의회 이승욱의원 아이스팩 재활용방안 제안

구례군의회 이승욱의원은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갖고 '환경오염 해소를 위한 아이스팩 재활용 방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의 변화가 불러온 냉동식품 등 식품 배송 신선도를 유지하는 아이스팩 사용량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오염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이스팩 재사용을 제안하고 아이스팩의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스팩 수거함의 설치를 제안했다. 아이스팩 수거함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와 아파트 단지 등 적절한 곳에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수거하여 선별 및 세척작업을 거친 후 관내 식품업체 및 신선제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이나 농가에 제공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구례(전남)=심인주 기자 6007sim@